

## GC녹십자웰빙 녹여먹는 셀레늄 보충제 출시

### 지씨웰빙셀레늄ODF

국내최초 ODF 제형 셀레늄 제품

GC녹십자웰빙이 최근 구강용해필름(ODF) 제형을 적용한 셀레늄 보충제 '지씨웰빙셀레늄ODF'를 출시했다고 3일 밝혔다. 국내에서 ODF 제형의 셀레늄 제품이 출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ODF제형은 정제 복용을 어려워하는 노인, 소아, 연하장애(삼킴장애) 환자들의 복용 순응도를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액상형 제제 대비 함량 정확성, 휴대 편의성이 개선되어 치료 효과

까지 높일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회사 측은 복용이 편리한 필름제형에 천연레몬향 맛을 첨가하는 등 환자들의 복용 편의성 개선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체내 필수영양소인 셀레늄은 면역력 증강뿐 아니라 독성물질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항암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주로 사용된다. 실제로 암요양병원에서는 방사선 치료의 부작용 및 항암제 내성 경감과 치료 부위에 발생하는 정맥염 및 부종 예방을 위해 셀레늄을 함께 처방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동원F&B, 몸체·뚜껑 무라벨 생수 선배

### 동원샘물 라벨프리 출시

동원F&B가 페트병 몸체와 뚜껑에 라벨을 없앤 무라벨 친환경 생수 '동원샘물 라벨프리(사진)'를 3일 출시했다.

'동원샘물 라벨프리'는 페트병에서 비닐 라벨을 떼어내는 번거로움 없이 음용 후 바로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제품이다. 몸체는 물론 뚜껑에도 라벨이 없어 재활용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동원샘물 라벨프리'는 제품명을 페트병에 레이저 인쇄 방식으로 새겨 넣었다. 인쇄 과정에서 잉크를 사용하지 않은 순도 높은 페트병이어서 재활용성이 더욱 높다. 기존 라벨에 적혀있던



제품명, 수원지, 무기물 함량 등 제품 표기사항은 개별 상품 묶음 포장을 위한 쉬링크 패키지(Shrink Package) 손잡이에 기재해 포장재의 재활용까지 고려했다.

동원F&B는 페트병의 무게 자체도 크게 줄여 친환경 요소를 더욱 강화했다. 동원샘물 500mL 페트병의 경우, 2013년 19g 대비 26% 줄어든 14g으로 업계 최경량 수준이다.

동원F&B는 올해에도 약 4g을 추가로 줄이는 등 지속적인 저감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 대웅제약 장기지속형 탈모치료주사제 개발 추진

### 인벤티지랩·위더스제약 업무협약

대웅제약은 지난 2일 인벤티지랩·위더스제약과 '탈모치료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개발·생산·판매'를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3사는 탈모치료 장기지속형 주사제 개발에 협력한다. 대웅제약은 임상 3상·허가·판매를 담당하고, 인벤티지랩은 전임상·임상 1상·제품생산 지원 업무를 맡고 위더스제약은 제품생산을 전담한다.

현재 임상시험에 쓰일 약물이 모두 생산을 마친 상태로, 3사는 오는 7월부

터 호주에서 1상을 시작해서 2023년 국내 발매를 목표로 한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매일 약을 먹을 필요 없이 최대 3개월에 한 번만 주사를 맞으면 돼 간편하다.

특히 탈모치료제를 복용할 때는 약사 지시에 따라 정해진 양을 제때 복용하는 이른바 '복용순응도'가 중요한데, 장기지속형 주사제로 탈모치료제를 투약하면 편리함과 함께 안정적인 효능도 담보할 수 있다. 병원을 방문해 투약하는 제제 특성상 오·남용과 부작용의 위험도 적다. /이세경 기자

## 롯데호텔, 시니어 타운 서비스 사업 진출

# 600세대 규모 시니어 타운 연내 착공

### 오시리아 프로젝트 조인식 진행 호텔운영 노하우 더해 프리미엄화 김현식 대표 "서울 등 전국 확대"

롯데호텔이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시니어 타운 서비스 사업에 진출한다.

롯데호텔은 고객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최고의 가치를 선사한다는 롯데그룹의 새로운 비전인 '라이프타임 밸류 크리에이터(Lifetime Value Creator)'에 맞춰 40여 년의 호텔 운영 노하우를 집약한 프리미엄 시니어 타운을 선보인다.

3일 시그니엘 부산 볼룸에서는 이봉철 롯데그룹 호텔&서비스 BU장, 김현식 롯데호텔 대표이사, 하한출 썬시티 회장(현 제세의료재단 제세한의원 대표원장), 윤미영 썬시티 대표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시리아 프로젝트의 조인식이 진행됐다.

롯데호텔은 입주자관리를 포함해 문화, 여가 및 다이닝 서비스 등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600세대 규모의 프리미엄 시니어 타운의 운영컨설팅을 진행한



오시리아 관광단지 미디어타운 조감도.

/롯데호텔

다. 시니어 타운은 올해 12월 착공을 시작하여 2024년 7월 오픈할 계획이다.

롯데호텔의 라이프스타일을 완성하는 첫 여정은 세계적 관광명소로 급부상 하고 있는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에서 시작된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부산의 경우 이르면 올해 10월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측될 정도로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경남 지역 롯데의 브랜드 파워와 시그니엘 부산의 성공적 운영을 통한 프리미엄 이미지에 힘입어 이번 프로젝트가 성사됐다"고 말했다.

오시리아 관광단지에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이 입점해 있으며 향후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 문을 여는 등 365일 3세대가 어울릴 수 있는 대규모 롯데타운이 조성될 예정이다.

김현식 롯데호텔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호텔 브랜드로서 인류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할 수 있는 위대한 도전이다"며 "오시리아를 시작으로 서울과 수도권 주요 교통 및 생활 중심지에 프리미엄 시니어 타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문 기자 silverbeauty@metroseoul.co.kr

## 갤러리아百, 비대면 투어 등 미술 콘텐츠 강화

### VIP 대상 미술작품 동영상·정보 제공 한 달새 1000만원 상당 작품 판매

#평소 미술 작품에 관심이 많던 백화점 VIP 고객 A씨는 백화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뷰잉룸(OVR)' 서비스를 통해 갤러리 작품을 영상으로 감상했다. A씨는 작품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작품을 발견, 해당 작품의 상세 정보를 알기 위해 별도의 프라이빗 뷰잉룸 링크에 접속했다. 작품에 관심이 생긴 A씨는 실물을 직접 보고 싶어 백화점 퍼스널쇼퍼에게 해당 작품 전시를 요청했다. A씨는 예약일에 백화점 VIP 전용시설에 방문해 실물을 보고 전문가와 상담 후 작품을 구매했다.

갤러리아백화점이 명품관을 중심으로 비대면 갤러리 투어와 갤러리 팝업스토어 등 VIP 고객을 타겟으로 미술작품 콘텐츠 강화에 나서고 있다.

갤러리아는 지난 5월부터 가나아트와 손을 잡고 비대면으로 예술 작품을



갤러리아가 VIP 고객들에게 동영상으로 제공하는 갤러리 투어를 관람하고 있는 모습

/갤러리아백화점

관람할 수 있는 '온라인 뷰잉룸(OVR)' 서비스를 명품관 VIP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갤러리아는 큐레이터의 해설이 담긴 미술작품 동영상도 별도로 제작, 1단계로 해당 영상의 온라인 링크 주소를 고객들에게 문자로 발송한다.

이후 고객은 해당 영상을 감상하고 특정 작품에 관심이 있을 시 2단계 절차로 비밀번호가 부여되는 가나아트 프라이빗 뷰잉룸을 접속하여 가격 등

구매에 필요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마지막 3단계로 구매의사가 있는 고객만을 위해 명품관 VIP전용시설에 해당 미술 작품을 가져와 고객 상담과 함께 구매절차를 밟게 된다.

시행한 지 첫 달이지만 1000만원 상당의 작품이 판매되기도 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매장 콘텐츠에 있어서도 최근 갤러리아는 명품관에 갤러리 팝업스토어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다. 지난 5월 갤러리아는 지갤러리아와 미국 현대 미술 작가 '마이클 스코킨스 기획전'을 진행, 행사 첫날 11개 작품 중 10개가 판매됐다. 이후 나머지 한 작품까지 완판됐으며, 판매수익금 일부를 취약계층 아동에게 기부하여 좋은 의미까지 더할 수 있었다. 현재는 6월 10일까지 명품관에서 그림 구독 서비스업체 '핀즐'의 팝업스토어를 진행하고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악성 미세석회 조기 발견시 유방암 생존율 95% 이상”

###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안수경 교수

여성들의 가슴에서 손으로도 만져지는 악성 미세석회를 조기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유방암 생존율을 95% 이상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외과 안수경 교수는 초기 유방암의 경우 흑으로 나타나기보다 미세석회로만 드러나는

경우가 있어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고 3일 조언했다.

유방 미세석회가 악성인 경우, 단순 갈슘 성분이 아닌 암세포가 석회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유방 내에 암세포가 존재할 수 있는 만큼 빨리 찾는 것이 필수다. 악성 미세석회를 조기에 찾아내면 생존율이 95%까지 높일 수 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유방 검사에서 나타나는 미세석회는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양성 미세석회는 유방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일부에서는 악성인 유방암으로 진단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 안 교수는 입체정위생검술이라 불리는 조직검사를 이용해 미세석회를 확인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오늘의 날씨**

6월 4일 (금)  
음력 : 4월 24일

수도권 날씨  
**16~23°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연천 14/23, 동두천 14/23, 가평 13/24, 파주 13/23, 서울 16/23, 양평 15/24, 인천 14/20, 수원 16/23, 용인 16/23, 평택 15/25

백령도 13/21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